

동정

- 회원사
- 관련기관

쌍용정보통신

멀티미디어 영상매거진

“씨네21 CD-ROM 타이틀” 출시
 쌍용정보통신이 국내 최초의 영화전문 멀티미디어 영상매거진으로 기획한 ‘씨네21 CD-ROM 타이틀’이 제작 완료되어 출시했다. 이 CD-ROM타이틀은 한겨레 신문사가 발행하고 있으며, 다수의 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영화전문 주간지 ‘씨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멀티미디어 잡지로서 영화를 사랑하는 매니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함께 다양한 영화세계를 즐길수 있는 제품이다. 씨네21 CD-ROM 타이틀은 지면상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다양한 동영상과 애니메이션, 그리고 결작 단편영화 등이 담긴 ‘네오 씨네21’과 창간 이후 1년간 출간되었던 씨네21의 기사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한 ‘씨네21 정보창고’라는 두 개의 CD-ROM타이틀로 구성된다.

첫번째 CD-ROM 타이틀은 ‘네오 씨네21’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영상물들을 제공한다. 먼저 ‘단편영화의 세계’라는 코너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감독들이 말하는

독립영화의 정의를 들을 수 있으며 비디오나 TV로는 접하기 어려운 단편영화들의 전편이 제공된다.

두 번째 CD-ROM 타이틀 ‘씨네21 정보창고’를 통해서 창간 이후 1년간의 씨네 21을 새롭고 편리한 방법으로 만날 수 있다. 3,000여개의 기사, 4,000여 장의 사진, 그리고 300여개의 새로운 영상용어들을 ‘발행호/주제어/사진/목차별/본문 단어별 검색’ 등 다양한 검색방법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 영화전문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로서의 기능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 종합통신망 수주

쌍용정보통신은 최근 신용보증기금의 본점과 서울·경기·대구·부산등 8개 지역 및 93개 전국지점 등을 연결하는 종합통신망을 구축하기로 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내년 2월까지 구축될 예정인 신용보증기금의 전국종합통신망은 LAN의 경우 10Mbps의 인터넷으로 구축되며 WAN은 서울 및 인천지역을 최고 5백12Kbps의 전용회선으로 기타지역은 T1급(1.544Mbps)공중회선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쌍용정보통신은 특히 이 종합통

신망에 프레임레이방식을 도입, 통신회선비용을 기존방식보다 30%정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은 이 종합통신망을 통해 은행·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한편 회사내 사무자동화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우정보시스템

인재육성프로그램 “나이스2000”시행

대우정보시스템이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인재육성 및 교육훈련프로그램인 ‘나이스2000’을 마련,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대우정보시스템이 시행하고 있는 ‘나이스2000’프로그램은 정보산업분야에서 최고의 위상을 정립하고 가장 진보적인 그룹 정보망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대우의 전직원들은 순차적으로 교육센터에 입소해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 IT산업의 변화 추이, 기업 엔지니어링 사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IT분야의 전문과정을 이수해야만 한다.

현재 대우그룹은 전산화의 기본 방향을 그룹차원의 정보공유 체제 구축, 해외공장 및 법인업무의 정보화, 시스템 개발운영의 국제화등으로 정해 놓고 있다. 또한 현재의 단순 MIS를 CIMS(컴퓨터 통합생산), CALS 등으로 점차 확대,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대우정보시스템은 ‘나이스2000’교육을 통해 전체 직원들이 그룹 전산화의 문제점을 조기에 인식하고 정보기술화 및 전산화 수요의 변화 추세에 적극 대처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통해 전산부문의 체질을 종전의 산성체질에서 알카리성 체질로 바꾸겠다는 전략이다.

정보통신부

전산망 보안대책 강화, 안전진단 시스템 개발 보급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전산망 보급 확대가 진전되면서 전산망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 하는 해킹 등의 부작용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산망 해킹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 보급하는 등 전산망 보안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각종 전산망의 보안상 취약점을 분석, 진단해 인터넷에서의 해킹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산망 안전 진단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하고 본격 보급한다고 지난 8월8일 밝혔다.

정보보호센타를 통해 개발된 이 안전진단 프로그램은 시스템 관리자나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외부로부터의 해킹 가능성과 시스템 관리자의 권한 취득 가능성 등 전산망 시스템의 취약사항을 사전에 분석, 진단해 해커 침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소프트웨어는 유닉스 환경에서 국내 이용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글로 개발됐다.

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센타를 통해 이 소프트웨어를 전산시스템 운용기관에 무상 지원하는 한편 SW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교육도 지원할 방침이다.

기아정보시스템

중기 통합 정보망 계획수립

기아정보시스템은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추진중인 '중소기업 통합정보망' 프로젝트의 종합계획(마스터플

랜) 수립 작업에 착수했다.

기아정보시스템과 연세대 산업시스템 공학과의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번 프로젝트는 중소기업 현황 분석 등 중소기업전문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아는 올해말까지 중소기업통합정보망을 시험적으로 구축하고 향후 미국, 일본 등 선진 외국의 중소기업 전산망과도 연동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통합정보망'은 정부가 정보화 추진 10대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향후 산업정보화를 촉진,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제일씨엔씨

중소유통업 위한 NET-POS 사업 본격 진출

제일씨엔씨가 중소기업체들의 정보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NET-POS'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제일씨엔씨는 유통부문의 정보화 사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최근 'NET-POS'시스템을 새로 개발하고 'POS데이터 특약점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이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제일씨엔씨가 추진키로한 'NET-POS'사업은 일종의 판매시점정보관리(POS) VAN(부가가치통신망) 서비스로 슈퍼마켓·의류·약국 등 중소기업체들의 수발주 및 점포관리 등 업무에 적합한 솔루션이다.

제일씨엔씨는 우선 슈퍼마켓 시장을 집중 공략하기로 하고 최근 슈퍼마켓분야 POS시스템 전문업체인 한국IPC와 협력해 가맹점 모

집에 나서기로 했다.

제일씨엔씨는 슈퍼마켓에 이어 의류·화장품·약국 등 전문점을 대상으로 가맹점을 늘려나간다는 전략이다.

데이콤

해외기업정보, 천리안에서 얻는다.

데이콤은 세계 최대의 기업정보 회사인 D&B(Dun & Bradstreet)와 정보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세계 각국의 컨트리리스크와 해외 상장사의 주요 재무 지표 등 해외 진출 기업에 필수적인 투자정보를 지난7월29일부터 천리안 매직콜을 통해 제공하기 시작했다.

제공정보는 세계 약2만여 상장기업체의 기업정보/재무정보와 최신 국가정보를 세계 수준의 전문가들이 심층 분석, 매월 각국의 신용등급을 보여주는 컨트리리스크 신용정보, 각국의 인문지리에 관한 일반사항과 주요 경제지표를 제공하는 주요 통계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D&B 해외기업 / 국가정보 초기화면

D&B 해외기업 / 국가정보 (DNB) Dun & Bradstreet Korea Br. (761-1070)

<해외기업 분석정보>

1. 해외상장사 기업정보 / 재무정보
2. 국가별 주요 통계자료
3. 컨트리리스크 신용정보
4. 주요국가 컨트리리스크
5. 뉴스매거진 / 뉴스속보

<이용안내>

11. 정보이용안내
12. 운영자에게
13. D&B 광장

LG-EDS 시스템

LG화학과의 공동 수행, 신물질정보 시스템 구축

LG-EDS시스템과 LG화학 산업자재사업부는 최근 공동으로 기존의 물류시스템을 개선해 정확한 재고관리, 배송시간 단축 및 실영업활동을 강화한 신물류정보시스템을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으로 구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스템은 그동안 주문에서 출하까지의 각종 물류정보가 대리점, 영업, 생산, 출하부분간에 실시간(Real Time)으로 공유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물류정보시스템은 대리점 주문 및 생산간, 출하관리 정보를 발생되는 시점과 장소에서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입력된 정보는 주전산기(HOST)에 실시간으로 접속(Interface)되어 사내 전 부서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이번 시스템은 입력 정보를 주전산기(HOST)에 실시간으로 접속시켜 주는 도구인 'Express Channel Gateway'을 이용, 국내 최초로 근거리 통신망(LAN)방식의 이기종간(IBM-SUN)간 접속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LG화학 산업자재사업부는 신물류정보시스템 가동으로 재고회전일수 및 재고금액의 감소와 함께 영업사원의 업무효율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배송시간 단축과 최적 재고관리로 생산안정화는 물론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데 이 콤

케이블TV망 이용 멀티사업 참여
 데이콤이 케이블TV망을 이용하는 멀티미디어사업에 본격 참여한다. 지난 8월12일 데이콤은 최근

미국의 케이블 모뎀 관련 벤처기업인 COM21사에 4백만달러를 투자, 이 회사 지분의 4.8%를 확보하고 비용기전송모드(ATM)방식의 음성 데이터 통합 케이블 모뎀과 관련 소프트웨어개발을 골자로 하는 전략적 제휴관계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COM21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소재 벤처기업으로 세계적인 내트워크 사업자인 3COM과 반도체 개발업체인 AMD사가 데이터 전용 케이블 모뎀을 출시할 예정이다.

양사가 전략적 제휴를 통해 공동 개발한 음성 데이터 통합 케이블모뎀은 케이블TV망을 통해 기존 전화망보다 3백배 이상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송수신 할 수 있으며 ATM 전송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주문형비디오, 대화형TV, 초고속인터넷 및 PC통신 등 각종 멀티미디어 서비스와 음성전화서비스까지 지원할 수 있는 첨단 네트워크 장비이다.

쌍용정보통신

ERP(전사적 경영관리)구축 사업 신규 진출

쌍용정보통신이 최근 국내 기업들의 활발한 해외진출 등 경영 환경이 급변하면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ERP(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전사적 경영관리)시스템의 구축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이를위해 SICC는 최근 네덜란드 BANN(반)사의 ERP시스템인 TRITON의 국내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자체 ERP사업팀을 조직, 쌍용그룹 각 계열사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표준 시스템으로 정착을 추진함은 물론 국내의

다국적 기업이나 해외진출이 많은 대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시스템 구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전략적 경영정보시스템(SIS) 개념에 이어 도입되기 시작한 ERP시스템은 제조업체는 물론 유통,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 전산화를 지원하는 기업용 소프트웨어로서 인사, 재무, 사무자동화, 설계, 자재, 재고, 원가, 공정관리 등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기업활동 전 영역의 업무흐름의 일괄관리를 통해 경영혁신을 유도하는 신개념의 시스템이다.

특히 SICC가 도입하는 TRITON은 제품의 기능과 구조의 유연성이 뛰어난 뿐만아니라 ERP도입의 전제조건인 경영프로세스 재설계(Business Reengineering)가 없이도 기존 시스템에 곧바로 적용한후 최적화 과정을 거치면 될 만큼 성능이 강력해 국내 적용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TRITON은 최근의 글로벌 환경을 맞아 본사는 물론 해외 각지역의 공장이나 지사를 통합할 수 있는 뛰어난 Multi-Site 기능이 강점으로 현재 미국의 보잉사 등 복잡, 방대한 제조산업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한국중공업이 이 시스템을 도입, ERP시스템을 구축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국내 ERP시장은 약 3000억원 대로 추산되지만 대기업들의 ERP도입이 증가하는 추세에다 시스템의 설치와 컨설팅 등 부가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이 별도의 대형 시장을 형성함에 따라 국내 정보시스템 구축 전문기업들이 ERP사업 참여가 가속화될 전망이다.